

## 한국인의 마음지도 I: 한국 대학생의 정서, 사고방식, 가치관\*

한 민 최 인 철\* 김 범 준 이 훈 진 김 진 형  
서울대학교 경기대학교 서울대학교

본 연구는 한국인의 정서, 사고방식, 가치관을 지역별, 연령별, 계층별로 구분하여 측정함으로써 한국사회의 마음의 분포가 어떻게 이루어져있는지를 파악하고, 한국인의 마음지도(Korean Mind Map)를 체계적으로 그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 일련의 연구 중 첫 번째 시도로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역별 차이를 기술하고자 수행되었다. 정서, 사고방식, 가치관 각 영역을 측정하기 위한 11개의 척도들을 선정하여 서울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 5대 권역에서 각 권역 당 200명씩 총 1,000명의 대학생들에게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서 영역에서, 우울은 강원과 충청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주관적 안녕감(SWB)은 서울경기와 경상지역이 높고 강원, 충청지역이 낮았다. 둘째 사고방식에서의 차이는, 강원과 충청지역의 종합적 사고경향이 높았고 서울경기, 전라, 경상지역은 낮았다. 셋째, 가치관에서는, 보수성은 전라와 경상지역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서울경기, 강원, 충청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신뢰는 서울경기, 전라, 경상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았고 강원, 충청지역에서는 낮았다. 본 연구를 통해 수집된 지역에 따른 한국인의 정서, 사고방식, 가치관에 대한 정보들은 한국인 이해에 대한 기초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음은 물론, 지역의 심리적 특성에 대한 이해와 관련 변인을 사용하는 앞으로의 연구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한국인의 마음지도, 정서, 사고방식, 가치관

\*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0-330-B00305).

† 교신저자 : 최인철,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151-746)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Tel: 02-880-6399, E-mail: ichoi@snu.ac.kr

심리학에서 본격적으로 문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1990년대 이후로 문화와 심리의 관계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 Hofstede(1980)가 세계의 문화를 구분하는 네 가지의 차원(권력거리, 개인주의 vs 집합주의, 남성성 vs 여성성, 불확실성 회피)을 제안한 이래, 심리학에서는 개인주의 vs 집합주의의 차원을 주로 비교문화 연구들에 채택해왔다. 개인주의-집합주의 차원은 개인이 행동을 결정할 때 자신의 지향과 판단에 근거하느냐 혹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지향에 근거하느냐를 기준으로 문화를 구분하고 있으며(Triandis, 1988), 이 차원에 의거하여 자기관(Markus & Kitayama, 1991), 발달(Rothbaum, Weisz, Pott, Miyake, & Morelli, 2000), 동기(Heine & Lehman, 1997), 정서(Kitayama, Markus, & Kurokawa, 2000), 인지(Nisbett, Peng, Choi, & Norenzayan, 2001), 대인관계(Rothbaum, Pott, Azuma, Miyake, & Weisz, 2000)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룬 연구들이 문화와 인간행동 이해에 귀중한 정보를 제공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성과에도 불구하고 문화 연구들은 적지 않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첫째로, 문화 구분에 대한 문제를 들 수 있다. 비교문화심리학에서 대다수의 연구들은 세계의 문화를 개인주의 문화와 집합주의 문화로 이분하고 있다. 이런 단순한 이분법적 구분 때문에 각 문화의 하위문화와 하위문화의 특성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한계에 다다를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특정 종속변인의 차이를 보기 위해 미국과 일본을 비교하거나 미국과 한국, 혹은 미국과 중국을 비교하는 경우, 이는 모두 개인주의 문화와 집합주의 문화 간의 비교로 귀결되어, 한국과 일본, 중국은 모두 집합주의 문화로만 이해된다. 그러나 이러한

이분법적 문화구분의 타당성은 최근의 연구들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동서양의 자기관을 비교한 종전의 연구들을 메타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동양인과 서양인의 독립적 자기-상호의존적 자기(Markus & Kitayama, 1991)의 차이는 비일관적이거나 거의 드러나지 않았으며(Levine, Bresnahan, Park, Lapinski, Wittenbaum, Shearman, Lee, Chung, & Ohashi, 2003), 한국에서 수행된 연구에서도 자존감이나 긍정적 환상 등에서도 예상되는 문화차이(예, 서양인의 긍정적 환상이 동양인보다 높다)와는 다른 패턴의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이누미야, 최일호, 윤덕환, 서동효, 한성열, 1999; 조선영, 이누미야, 김재신, 최일호, 2005).

두 번째는 조사대상자의 대표성 문제이다. 비교문화 연구들에서는 한 나라의 표본(예를 들어, 한국)이 한 문화(집합주의 문화)를 대표하게 되는데 해당하는 나라 전체에서 표집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제한된 지역에서 표집된 조사대상자들이 한 문화를 대표하는 집단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이 경우, 표본의 대표성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나 이제까지의 비교문화 연구들에서는 이 문제가 그리 큰 비중으로 논의되지 못하였다. 결국 기존 연구들은 한 문화권 내 혹은 한 나라 안에 존재하는 문화적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면, 집합주의 문화 내 하위문화인 한국, 중국, 일본의 문화에 대한 이해나, 한국 내의 지역, 연령, 계층 등의 하위집단의 문화에 대한 이해는 현재 비교문화심리학의 틀로는 도달하기 어렵다.

#### 문화차이의 원인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이러한 한계들이 노출되는 이유는 그간의

문화연구들이 개인주의 문화와 집합주의 문화 혹은 동양과 서양의 문화에 초점을 맞추고 두 문화 사이의 차이를 드러내는 것을 일차적 목표로 설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거시적 문화의 차원에서 문화 차이가 존재한다는 증거는 이미 충분히 축적되었다. 이제는 차이를 넘어서 문화차이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관심을 돌려야 할 때이다.

그러나 문화차이를 설명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Cohen, 2001). 문화의 차이를 설명하고자 하는 시도는 순환론적 오류에 빠지기 쉽다. 대개의 비교문화 연구에서 문화에 따른 종속변인의 차이는 독립변인인 문화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예를 들면, 개인주의 문화의 사람들이 자아존중감이 높은 이유는 개인주의 문화가 사람들의 자존, 자립, 자기실현 등의 가치를 강조하여 긍정적 자기상을 조장하기 때문이고, 집합주의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자아존중감이 낮은 이유는 집합주의 문화는 개인의 독특성보다는 집단의 지향과 집단 내에서의 조화를 우선시하기 때문이다(Markus & Kitayama, 1991; Heine & Lehman, 1995). 이러한 설명은 서로 다른 문화에 속한 개인들에게 내재화된 서로 다른 문화 성향이 행동의 차이를 만들어낸다고 설명하고, 다시 이 행동의 차이를 지표로 삼아 개인들의 문화 성향을 정의하는 방식으로 다분히 순환론적이다(박혜경, 2011).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최근의 비교문화심리학은 생태적, 사회정치적 맥락에 인간이 어떻게 적응하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문화를 기술하고 문화차이를 설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일례로, 동서양 사고방식의 차이에 대한 설명에서 Nisbett(2003) 및 Nisbett, Peng, Choi와 Norenzayan(2001)은 동양의 사고방식은

농경 중심의 중국문명에서 발달한 것으로, 농경중심의 사회에서는 여러 사람의 협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집단 내의 조화와 질서를 중요시하게 되었으며, 서양적 사고는 유목이나 어업, 교역을 중심으로 하는 그리스 문명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생존을 위해 반드시 다수의 사람이 협력해야 할 필요가 적었기에 개인의 자율성을 크게 보장하는 삶의 방식을 발달시키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 외에도 독립적 자기와 상호의존적 자기의 기원(Kitayama & Park, 2007)이나 생계유지 방식이 인지양식에 미치는 영향(Uskul, Kitayama, & Nisbett, 2008) 등에 대한 설명에서 생태문화적 설명이 적용되고 있다.

거시적 문화차이를 넘어서 그 차이의 이유를 밝히는 또 하나의 방법으로는 문화 내의 다양한 하위문화를 연구하는 방법이 있다. Vandello와 Cohen(1999)은 미국 내 50개 모든 주를 대상으로 독거인 비율, 독거노인(65세 이상) 비율, 3대 가족의 비율, 이혼율, 무종교인 비율, 지난 선거에서 진보성향의 후보에게 투표한 비율, 카풀(carpool)을 하는 사람들의 비율, 자영업자 비율 등의 8개 지표를 조사하여 50개 주의 집합주의 성향을 순위로 제시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루이지애나, 사우스 캐롤라이나, 미시시피, 메릴랜드, 유타 등 남동부 지역의 집합주의 점수가 높았고, 오레곤, 몬태나, 네브래스카, 와이오밍 등 서부 산악 및 대평원 지역의 주들에서는 낮았다.

또한 미국의 북부지역과 남부지역 남성들의 공격성을 비교한 Cohen, Nisbett, Bowdle과 Schwarz(1996)의 연구에서는 남부지역 남성들이 북부지역 남성들보다 공격성이 높게 나타났다. 연구자들은 그 이유를 공업이 발달한 북부보다 상대적으로 목축이 중심적인 경제 수단이

있던 남부에서는 자신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폭력을 정당화하는 문화(culture of honor)를 발달시켰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미국 남부지역은 개척시대의 척박한 환경과 목축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경제적 여건 때문에 남성들이 ‘얕잡아보거나 모욕할 경우 반드시 보복하는 거친 사람’이라는 명성을 갖는 것이 생존에 유리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 국가 간 문화의 차이는 일본의 연구에서도 보고된 바 있는데, Kitayama, Ishii, Imada, Takemura와 Ramaswamy(2006)는 홋카이도 주민과 본토 일본인을 비교한 연구에서 홋카이도 주민들이 보다 독립적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음을 보였다. 이러한 차이는 비교적 근대에 일본에 편입되어 이주 및 개척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홋카이도의 특성에서 비롯되었을 것으로 짐작되며, Vadello와 Cohen(1999), Cohen et al. (1996) 등의 연구처럼 생태문화적 요인으로 문화차이를 설명한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이러한 예들에서 볼 수 있듯이, 문화연구에서 한 문화 내의 문화차이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시도되고 있으며 실제로 문화 내의 다양성이 존재하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한국 내의 문화적 다양성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국내에서의 지역별 심리적 특성에 대한 연구는 해당 지역 내에서의 실태조사(예, 강원도 지역의 도박중독 실태(이인혜, 2005), 농촌지역 중·노년인구의 생활만족(장휘숙, 2007), 지역 노인들의 불안장애와 위험요인(조용래, 2008) 등) 정도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역간 비교연구도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을 뿐(예, 서울과 춘천의 비교(성민선, 서은국, 전우영, 2007), 경남지역과 대전의 비교(이민규, 김교현, 김정남, 2003), 안산과 영암의

비교(최훈석, 양애경, 이선주, 2008 등) 지역 전체를 아우르려는 시도는 거의 없거나, 있어도 특수하거나 제한된 변인에 대한 것(예, 교통환경과 운전자 행동요인의 전국 지역별 비교(한덕웅, 박군석, 신용균, 2002))이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가 내 문화차이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 내 지역들의 심리적 차이에 주목하고자 한다. 현재까지 국내의 지역적 다양성에 대한 연구가 실시되지 않았던 이유는 연구자들이 한국을 대체로 동질한 집단으로 상정해 왔던 데서 찾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한국은 비교적 작은 국토를 갖고 있으며(세계 230여 개국 중 108위), 역사적, 문화적 동질성이 대단히 강한 나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이 작은 나라라고는 하지만 지역적 특성은 존재하며 그것이 사람들의 심리와 행동에 미치는 영향 역시 무시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지금도 남아있는 각 지역의 방언과 세시풍속, 관습 등은 각각의 지방이 고유한 문화를 발달, 유지시켜왔다는 증거이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타지역 출신 사람들과의 문화적 갈등은 지역문화의 차이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방증이다. 본 연구는 한국 내 실제로 존재하는 지역적 차이를 체계적으로 기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무엇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생태문화적(ecocultural) 접근을 따르고 있는 최근의 문화 내 비교 연구들은 대개 생활패턴의 차이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문화적 성향을 추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미국 내 지역차이를 연구한 Vadello와 Cohen(1999)은 미국 내 각 주민들의 집합주의 수준을 알아내기

위해 실생활에서 집합주의적 행동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생활패턴들(예, 독거노인 비율, 3대가 함께 사는 세대의 비율, 카풀을 이용하는 이들의 비율 등)을 지표화하여 사용하였다. 예를 들어 노인들이 자녀들과 함께 사는 것을 선호한다던가, 다른 사람들과 같은 차로 출퇴근하는 것을 꺼리지 않는다면 그들의 집합주의 성향이 높다고 평가하는 방식이다.

또한 실험을 통하여 문화 내 집단 간의 차이를 드러내는 방법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Cohen과 동료들(1996)은 실험민족지학(experimental ethnography)이라는 용어로 자신들의 방법론을 규정하였다. 그들은 참여자들의 공격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일종의 상황조건을 조작하였다. 실험은 연기가가 연구참여자들을 모욕하는 상황을 연출하고 두 명의 관찰자들이 참여자의 분노 및 공격성 반응을 평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홋카이도와 본토 일본인의 차이를 연구한 Kitayama와 동료들(2006)도 연구참여자들에게 가장 인상깊었던 감정경험을 기술할 것을 요구하고 그 결과를 기존에 구성된 의미 범주에 따라 분석하는 방식의 실험적 연구설계를 사용하였으며, Uskul과 동료들(2008)도 터키의 어부, 농부, 목동집단의 인지양식을 주의, 범주화, 및 추론과제를 통하여 비교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지역 차이에 관한 연구로서 그간 동질한 집단으로 가정되던 한국 내의 지역 차이의 존재여부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진다. 또한 그러기 위해 가능한 많은 표본을 대상으로 현재 연구되고 있는 다양한 심리학적 개념들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에 기술된 실험법보다는 자기보고 방식의 설문지 조사법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

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인간의 기본적 심리를 구성하는 인지, 정서, 행동 전반에 대한 다양한 심리적 변인을 측정하여 지역 차이를 밝히는 것이다.

### 정서에 관한 이해

정서는 크게 정적 정서와 부적 정서로 나뉜다(강혜자, 한덕웅, 전경구, 2000; 안신호, 권오식, 이승혜, 1990, Watson & Tellegen, 1988). Watson, Clark과 Tellegen(1988)은 이러한 정적 정서와 부적정서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Positive Affect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PANAS)를 개발하였고, 이후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신뢰도 및 타당화 연구가 이루어져(Killgore, 2000; Kvaal & Patodia, 2000; Melvin & Molloy, 2000) PANAS는 국적과 연령에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는 신뢰롭고 타당한 정서측정 도구임이 입증되었다. 본 연구는 한국인들의 정서를 기술하기 위해 우선 PANAS를 사용할 것이다. 또한 정서의 2요인이라 할 수 있는 긍정정서와 부정정서를 바탕으로 대표적 긍정 정서인 행복과 대표적 부정정서인 우울, 불안 등을 측정하여 한국인들의 기본적 정서경험을 포괄하고자 한다.

한국인들의 행복 수준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 세계적으로 실시된 행복도 조사에 의하면 한국은 거의 예외 없이 중하위권에 랭크된다(갤럽; 155개국 중 54위, OECD; 34개국 중 26위). 최근 실시된 서은국, 구재선, 이동귀, 정태연, 최인철 (2010)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인의 행복지수는 100점 만점에 63.22로 Hyers와 Diener(1996)가 45개국 110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세계 평균 67.5보다 낮았다. 급증하는 우울증 환자의 수와 OECD 1위의 높은 자살율 등은 현재 한국인들이 상당

한 수준의 스트레스에 직면해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한국인의 행복 및 우울의 지역별 차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한국인의 정서에 대한 이해 뿐 아니라 행복 연구 및 지역 연구에도 시사하는 바가 많을 것이다.

심리학에서 개인의 행복도를 측정하는 개념은 크게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과 심리적 안녕감(Psychological Well-Being)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주관적 안녕감이란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하여 얼마만큼 만족하며, 삶에서 어떠한 정서를 경험하고 있는가를 의미한다. 연구자들에 따르면 주관적 안녕감은 삶의 만족이라는 인지적 요인과 긍정 및 부정적 정서의 정서적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가정된다(Deiner, 1984; Diener et al., 1999). 삶의 만족은 개인이 주관적으로 설정한 기준과 비교하여 자신의 삶을 평가하는 것을 말하며(Shin & Johnson, 1978), 정서적 요인은 삶에서 경험하는 일들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정서반응들을 포괄한다. 그러므로 주관적 안녕감 수준이 높다는 것은 높은 삶의 만족과 많은 긍정적 정서경험, 그리고 적은 부정적 정서경험을 하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행복을 측정하는 또 하나의 지표는 심리적 안녕감이다. Ryff(1989)는 행복한 삶이 단지 만족스럽고 좋은 기분을 느끼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좋은 삶이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개인이 얼마나 잘 기능하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사회 속에서 기능하는 개인의 다양한 측면, 즉 Maslow의 자아실현(self-actualization), Rogers의 완전히 기능하는 개인(fully functioning person), Jung의 개성화(individuation), Allport의 성숙(maturity), Erikson의 심리사회적 발달 등에 초점을 맞춘 심리적 안

녕감이라는 개념을 제안하였다(Ryff & Keyes, 1995). 그러므로 심리적 안녕감이 높은 삶이란 자기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며, 긍정적 대인관계를 유지하고,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 및 환경을 선택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통제력을 갖추고, 목적을 가지고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시키려는 동기가 있는 삶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이와 같은 행복의 조작적 정의를 따를 때 그러한 조건들, 즉 삶에 대한 만족 및 긍정적 자기상과 대인관계 등이 충족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개인은 높은 우울 및 불안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본 연구는 행복의 부정적 측면이라 할 수 있는 우울과 불안을 측정하여 한국인의 정서경험을 다각적인 면에서 조명하고자 한다.

우울이 미치는 신체적, 정신적 역기능의 심각성 때문에 우울을 측정하기 위한 많은 척도가 개발되어왔다. 대표적인 것만으로도 SADS(Schedule for Affective Disorders and Schizophrenia, Endicott & Spitzer, 1978), HRSD(Hamilton Rating Scale for Depression, Hamilton, 1960), BDI(Beck Depression Inventory, Beck, 1978), SDS(Self-Rating Depression Scale, Zung, 1965)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척도들은 주로 우울증 환자의 정신병리를 진단하기 위한 임상적 도구들로 일반인들의 우울을 측정하기에는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울증 환자들이 아닌 일반인 및 신체병리를 가진 사람들의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CES-D(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Radloff, 1977)을 사용할 것이다. CES-D는 우울의 신체, 정신적 증상보다는 정서에 초점이 맞추어져 구성되어 있으며 기준에 타당성이 검증된 다른 우울 척도들(예, BDI, SDS, MMPI-D)에서 문항을 선별하였기 때문에 안정적인 신뢰도와

타당도를 보고하고 있다(Radloff, 1977; Wessman, Myers, & Harding, 1976).

불안은 우울과 함께 대표적인 부정적 정서로 고려되어 왔다. 우울과 불안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음이 보고되어 왔으나(Dobson, 1985 등), Beck은 불안이 우울과 구분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불안의 개념을 신뢰롭게 측정하기 위한 척도(Beck Anxiety Inventory, BAI)를 개발하였다. 주관적 요인과 신체적 요인을 측정하는 문항들로 이루어져 있는 BAI는 많은 연구들에 의해 신뢰도 및 수렴, 변별타당도가 확인되어 왔으며(Beck et al, 1988; Beck & Steer, 1991; Steer, Ranieri, Beck & Clark, 1993; Wetherell & Arean, 1997 등), 환자들 뿐 아니라 다양한 연령을 포괄하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한은경, 조용래, 박상학, 김학렬, 김상훈, 2003)..

#### 사고방식에 관한 이해

인지에 해당하는 인간의 정신활동은 지능, 사고, 의사결정, 추론 및 창의성 등 많은 영역을 포괄한다. 이 중에서 본 연구가 관심을 갖는 인지의 영역은 사고방식이다. 사람들은 어떤 일의 원인을 설명하거나 결과를 예측하는 자신만의 인과모형을 사용한다. 인과모형이란 세상을 구성하는 요소들 간의 관계에 대한 암묵적 믿음으로, 문화의 영향력 하에 놓여있다(설선혜, 최인철, 2009). 한국을 포함하는 동아시아 문화권의 사람들은 서구 문화권의 사람보다 훨씬 복잡한 인과모형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Choi, Nisbett, & Norenzayan, 1999), 이러한 차이는 종합적 사고와 분석적 사고로 알려진 동양과 서양의 사고방식의 차이에서 기인한다(Nisbett, Peng, Choi, Norenzayan, 2001; Norenzayan & Nisbett, 2000).

종합적 사고란 주로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발달한, “세상의 모든 요소들이 서로 어떻게든 연결되어 있어서 어떤 사건이나 대상을 전체로부터 분리하여 이해하는 것은 어렵다”는 믿음을 전제로 하는 인지양식을 말하며, 분석적 사고란 서구문화에서 발달한 “세상은 서로 분리된 독립적 원소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인지양식을 의미한다(Choi et al., 1999; Nisbett et al., 2001).

그 결과, 동양인과 서양인은 다양한 인지과정에서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지각과제에서의 주의할당 방식에서 미국인들은 대상의존적(object-dependent)인 특징을 보이는 반면, 동아시아인들은 장의존적(field-dependent)인 성향이 강하게 나타내었으며(Masuda & Nisbett, 2001; Morris & Peng, 1994), 범주화 경향에서는 서양인들은 대상의 분류학적 속성을 기준으로 범주화하지만 동양인들은 요소들 간의 관계에 근거하여 범주화하였다(Norenzayan, Smith, Kim, & Nisbett, 2002). 또한 추론 방식에 있어서 서양인들은 형식 논리에 입각하여 참과 거짓을 판단하는 반면, 동양인들은 모순이 되는 명제들도 서로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외견상의 논리적 모순에 대해 관대한 태도를 가지며 중립적 입장을 취하려는 변증법적 추론을 선호한다(Peng & Nisbett, 1999). 변화의 추세를 예측할 때에도 서양인들은 과거의 추세와 일관된 방향성을 갖는 선형적 변화(linear change)를 예측하는 반면, 동양인들은 과거에 변화한 추세 외의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평균으로 회귀하는 양상의 순환적 변화(cyclic change)를 예측한다(Ji, Nisbett, & Su, 2001).

이러한 사고방식은 문화와 깊은 관련을 가진다고 생각되어 왔다. 심리학에 있어서 세계

의 문화는 크게 개인주의 문화와 집합주의 문화로 이해되어 왔다(Triandis, 1988). 서구에서 발달한 개인주의 문화는 집단에서 분리된 독립적 존재로서의 개인을 가정하며, 자율성, 독자성, 유능성 등 개인의 가치를 중시하는 문화인 반면, 주로 동양문화권에서 나타나는 집합주의 문화는 집단의 구성원으로서의 개인을 상정하며 개인의 가치보다는 화합, 협동, 의무와 같은 집단의 가치를 강조한다(Markus & Kitayama, 1991; Triandis, 1994, 1995). 이러한 이해에 근거하여 사고방식의 경우, 분석적인 사고는 서구 개인주의 문화의 산물이며 종합적 사고는 동양 집합주의 문화에서 파생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Nisbett, 2003; Nisbett et al., 2001).

그러나 개인주의-집합주의의 분류는 이분법적 구분으로 인해 그 적용의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Triandis, Leung, Villareal, & Clark, 1985). 예를 들면, 같은 집합주의로 분류되는 국가들 사이에서 보이는 확연한 차이를 2요인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최상진, 1993). 또한 2요인 척도의 낮은 신뢰도도 지적되었다(Triandis, McCusker, & Hui, 1990). Triandis와 Gelfand(1998)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평-수직의 차원을 도입하여 보다 설득력 있는 4요인(수직-개인주의, 수평-개인주의, 수직-집합주의, 수평-집합주의)의 문화 범주를 제안하였다. 수직-개인주의 성향의 사람들은 자신의 독특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경쟁을 통해 타인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는 것을 추구하며, 수평-개인주의 성향의 사람들은 개인의 자율성을 추구하지만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적 위치가 아닌 대등한 관계를 선호한다. 수직-집합주의 성향은 개인이 집단에 완전히 종속되어 집단의 가치가 개인에

우선하는 것을 뜻하며, 수평-집합주의는 집단의 가치에 높은 의의를 두지만 집단 구성원들과의 평등한 관계를 추구하려는 성향이 있다고 가정된다.

전통적으로 한국은 대표적인 집합주의 문화권의 나라로 분류되어 왔으며, 그에 따라 종합적 사고경향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결과들에 따르면 더 이상 한국을 전형적인 집합주의 문화로 분류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한국 대학생들의 개인주의 성향은 집합주의 성향을 앞서고 있으며(류승아, 2009; 박현경, 이영희, 2004; 한규석, 신수진, 1999), 집합주의 문화권 내의 개인주의적 성향(자율성) 역시도 나라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한민, 이누미야, 김소혜, 장웨이, 2009). 따라서 기존의 개인주의-집합주의의 분류보다는 수평-수직 축을 포함하여 세분화된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 현재 한국인들의 문화성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직접적인 사고방식의 유형과 사고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성향을 측정하여 지역별 차이를 살펴보았다.

#### 가치관에 대한 이해

마음에 대한 이해는 인지, 정서와 함께 행동 요소의 이해가 필수적이다. 행동은 결국 사람들의 마음이 발현되는 방향을 지시하기 때문이다. 가치관은 인지, 동기, 태도는 물론 행동과도 긴밀하게 연결된다고 가정된다(한덕웅, 이경성, 2003). 가치관은 여러 사회행동에 관한 신념에 영향을 미치고(Ajzen, 1988), 생활 목표의 설정에 기여한다(Markus & Wruf, 1987; Srull & Wyer, 1986). 또한 가치관은 판단과 행동의 기준을 제공하는 기능, 신념이나 태도를 조직화해 주는 기능, 자기 행동과 감정을 합



리화시키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차재호, 1987).

이러한 가치관은 비교문화심리학의 연구에서 집단이나 문화의 특징을 기술할 때 많이 연구되고 있다(Kluckhohn, 1959; Rokeach, 1973; Schwarz & Bilsky, 1987; Schwarz 1994; Triandis, 1990). 문화심리학적 관점에서 가치관을 다루는 연구들은 문화나 생태학적 환경이 가치관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문화는 가치의 체계로서(Hofstede, 1980), 개인과 집단의 사고와 행동을 인도한다. 사람들은 주어진 환경적 조건에서 삶을 유지하기 위해 특정한 가치에 의미를 부여해 왔다. 예를 들어 인도에서 소를 숭배하거나 이슬람 문화권에서 돼지를 금기하는 것은 주어진 자연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이다(Harris, 1987). 이렇듯 문화는 기본적으로 사회유지를 위해 발달해 온 것으로 문화가 구성원들에게 요구하는 가치들은 기존에 확립된 사회적 질서 및 구조에 대한 선호를 의미하는 보수성(Altemeyer, 1998)과 관련을 갖기 쉽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수적 가치에 중점을 두고 한국인들의 가치관을 조사하고자 한다. 정치적 의미에서 진보의 대척점에 있는 보수와는 별개로, 심리학적으로 정의되는 보수성의 핵심은 '질서와 구조에 대한 선호'이기 때문에(Jost, Glaser, Kruglanski & Sulloway, 2003), 보수성은 단순히 특정 정당에 대한 정치적 지지 여부를 떠나서 개인의 일상의 삶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보수성과 관련있는 개념으로서 권위주의,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신뢰 등을 선정하여 지역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하고자 한다.

권위주의는 기존의 사회적 위계에 대한 수용 및 인정을 의미하는 개념으로서, 강자에 대한 복종, 약자에 대한 가혹함, 그리고 권력

과 지배가 중요하다는 신념이 포함되어 있다(Adorno, Frankel-Brunswick, Levinson, & Sanford, 1950). 유교문화의 전통에서 한국인들은 인간관계에서의 위계와 서열을 중시하는 권위주의적 행동양식에 익숙해 있으며(최재석, 1994), 권위관계가 인간관계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Triandis, 1995).

Altemeyer(1988)는 권위주의를 권위주의적 복종, 권위주의적 공격성, 인습주의라는 세 가지 태도요소로 구성된다고 보고 이를 측정하는 보수적 권위주의 척도(RWA, Right-Wing Authoritarianism)를 제작하였다. 한편, 권위주의는 사회적 지배경향성(SDO, Social Dominance Orientation)과 관련이 있다고 여겨진다(Dru, 2007; Whitley & Lee, 2000). 특히 권위주의 성격(RWA)의 하위요인 중 하나인 권위주의적 공격성은 사회적 지배지향성(SDO)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Passini, 2008; Whitley, 199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수성을 측정하기 위한 개념으로 보수적 권위주의(RWA)와 사회적 지배지향성(SDO)을 사용하고자 한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신뢰를 추가적으로 측정하고자 하였다. 신뢰는 사회체제와 사람들에 대한 믿음의 정도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그 외에도 안전(security), 동조(conformity), 전통(tradition), 박애(benevolence), 보편주의(universalism), 자율(self-direction), 자극(stimulation), 쾌락주의(hedonism), 성취(achievement), 권력(power) 등의 핵심가치 영역을 측정하는 Schwarz(1994)의 가치관척도를 사용하여 한국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다양한 가치들의 지역적 차이를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바탕을 두고, 지역에 근거한 한국인의 마음의 지도(Korean

Mind Map)를 그려보고자 하였으며, 그 첫 단계로 한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음의 지도를 작성하였다. 한국인의 마음을 구성하는 여러 영역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는 한국인의 행동들을 이해하는 데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한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기본적 정서 변인들을 조사하여 지역적 차이를 기술한다.
2. 한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사고방식과 관련된 변인들을 조사하여 지역적 차이를 기술한다.
3. 한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가치관 변인들을 조사하여 지역적 차이를 기술한다.

## 방 법

### 조사대상 및 절차

한국 대학생의 정서, 사고방식 및 가치관을 확인하기 위해 전국을 수도권, 강원, 충청, 호남, 영남의 5대 권역으로 구분해, 각 지역의

주요 국립대학에서 지역별 200명씩의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국립대학의 학생들을 조사대상으로 결정한 이유는 각 권역의 국립대학은 해당 지역 내의 학생들을 가장 포괄적으로 수용하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또한 각 권역의 문화를 보다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초, 중, 고 시기를 모두 해당 지역에서 보내고 해당 지역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지역별로 표집한 대학생들의 성비와 평균연령은 다음과 같다(표 1).

### 측정도구

#### 정서 영역

**우울.** 전경구, 최상진, 양병창(2001)이 개발한 한국형 우울증 척도(CES-D)를 사용하였다.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일들이 귀찮게 느껴졌다.’, ‘가족이나 친구가 도와주더라도 울적한 기분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등 우울증의 제반 증상들을 측정하는 2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참여자들은 지난 1주일 동안 각 문항과 같은 일이 얼마나 자주 있었는지에 대해 0점(1일 이하)에서 3점(5~7일)까지의 Likert 4점 척도로 응답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의

표 1. 5대 권역별 연구참여자 현황

	남		여	
	사례수 (%)	평균연령 (SD)	사례수 (%)	평균연령 (SD)
서울경기	129 (64.5)	22.78 (2.77)	71 (35.5)	20.49 (1.59)
강원	97 (48.5)	22.01 (2.44)	103 (51.5)	20.38 (1.41)
충청	101 (50.5)	21.86 (2.35)	99 (49.5)	20.55 (1.84)
전라	94 (47.0)	21.40 (2.37)	106 (53.0)	20.15 (1.65)
경상	102 (51.0)	22.68 (2.55)	98 (49.0)	20.70 (2.29)
계	523 (52.3)	22.19 (2.56)	477 (47.7)	20.45 (1.79)

Cronbach's  $\alpha$ 는 .906이었다.

**불안.** Beck, Epstein, Brawn과 Steer(1988)가 개발하고 Kwon(1992)이 번안한 BAI(Beck Anxiety Inventory)척도를 사용하였다. '가끔씩 몸이 저리고 쭈시며 감각이 마비된 느낌을 받는다.', '매우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낀다.' 등 불안장애의 제반 증상들을 측정하는 21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0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3점(거의 항상 그렇다.)까지의 Likert 4점 척도로 측정되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는 .912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 Diener, Emmons, Larsen과 Griffin(1985)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전반적으로 나의 삶은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삶에 가깝다.', '나는 나의 삶에 만족한다.' 등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을 측정하는 5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많이 그렇다.'(7)까지의 Likert 7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850로 나타났다.

**긍정정서와 부정정서.** Watson, Clark과 Tellegen(1988)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삶에서 경험하는 긍정적 정서('흥미진진한', '신나는', '강인한' 등의 10문항)와 부정적 정서('짜증난', '부끄러운', '화난' 등의 10문항)를 측정하는 2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많이 그렇다'(5)까지의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Cronbach's  $\alpha$ 는 긍정정서 .855, 부정정서 .877로 나타났다.

**심리적 안녕감.** Ryff(1989)의 심리적 안녕

감(PWB) 척도를 사용하였다. '사람들은 나를 잘 배풀고 나의 시간을 기꺼이 다른 사람과 나누는 사람이라고 여긴다.', '내 삶을 돌아볼 때 지금까지의 결과들에 대해 만족한다.' 등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삶에 대한 일반적인 안녕감을 측정하는 18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1)부터 '매우 그렇다.'(5)까지의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는 .802였다.

### 사고 영역

**종합적 사고.** Choi, Koo와 Choi(2007)가 개발한 종합적사고 척도(AHS)를 사용하였다. '부분보다는 전체적인 맥락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 '비록 우리가 알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현상이든지 수많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등 동양과 서양문화에서 발달한 두 가지 상이한 사고의 스타일을 측정하는 24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1)에서 '전적으로 동의한다.'(7)까지의 Likert 7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본 연구의 Cronbach's  $\alpha$ 는 .852였다.

**개인주의-집합주의/수직-수평차원 척도.** Singelis, Triandis, Bhawuk과 Gelfand(1995)가 개발한 척도(INDCOL)를 사용하였다. 세계의 문화를 개인주의/집합주의로 구분한 틀에 수직/수평차원을 더하여 보다 세분화한 문화적 성향을 측정하는 총 32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차원의 문항 예는 다음과 같다. 수직-개인주의; 어느 경쟁에서나 이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수평-개인주의; 나는 다른 사람과는 구별되는 독특한 사람이다, 수직-집합주의; 부모님들과 자식들은 가능한 한 함께 살아야 한다, 수평-집합주의; 만일 동료가 상을 탄다면

나도 자부심을 느낄 것이다 등.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1)에서부터 '전적으로 동의한다.'(7)까지의 Likert 7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본 연구의 Cronbach's  $\alpha$ 는 수직적 개인주의 .694, 수평적 개인주의 .823, 수직적 집합주의 .729, 수평적 집합주의 .815로 나타났다.

#### 가치관 영역

**보수성 척도.** Altemeyer(1998)가 개발한 30 문항짜리 보수적 권위주의 척도(RWA, Right Wing Authoritarianism)와 Zakrisson(2005)이 축약한 15문항짜리 단축형 RWA에서 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10문항을 추출해 사용하였다. '권위에의 복종과 존경은 어린 아이들이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들이다.', 등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한 개인의 보수성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1)에서부터 '전적으로 동의한다.'(7)까지의 Likert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는 .622로 나타났다.

**권위주의.** Pratto, Sidanius, Stallworth와 Malle(1994)가 개발한 사회적 지배지향 척도(Social Dominance Orientation; SDO)를 사용하였다. '어떤 집단의 사람들은 다른 집단의 사람들보다 더 가치있는 존재이다', '모든 집단의 사람들이 평등할 수 있다면 좋을 것이다.' 등 집단 간, 집단 내의 관계에서의 권위주의적 성향을 측정하는 16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1)에서부터 '전적으로 동의한다.'(7)까지 Likert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는 .686이었다.

**신뢰척도.** Yamagishi(1986)가 고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신에게 이득이 된다면 대부분

의 사람들은 거짓말을 한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정직하다.' 등 타인들에 대한 일반적인 신뢰를 측정하는 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1)에서부터 '전적으로 동의한다.'(5)까지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는 .655였다.

**Schwartz 가치관 척도.** Schwartz(1994)가 제안한 사회에서 통용되는 여러 가지 가치(예, '평등', '사회적 권력', '전통에 대한 존중', '환경보호' 등)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를 측정하는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Maio와 Olson (1995)이 축약한 27문항짜리 척도를 사용하였다. 참여자들은 '거부하는 가치에는 -1점을, 관심이 없으면 0점을, 그 외에는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도대로 1에서 7점까지 응답하였다.

그 외 나이, 성별, 지각된 사회경제적 수준, 학력, 종교 등의 인구통계학적 정보들을 포함하였다.

#### 분석방법

수집한 자료는 SPSS 16.0으로 분석되었다. 지역차를 검증하기 위한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과 변인들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상관분석을 주로 사용하였다.

## 결 과

#### 정서

##### 부정정서

**우울(CES-D).** 지역별 우울 경험의 정도 차를 알아보기 위해 일차적으로 CES-D 점수에

대한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지역 간 CES-D 점수의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였다( $F(4, 995)=3.06, p<.05$ ). 지역 차의 구체적인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Scheffe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강원 지역 대학생들이 경상 지역 대학생보다 더 높은 수준의 우울 점수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t(1)=4.11, p=.08$ ). 반면, 다른 지역들 사이의 CES-D 점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표 1).

CES-D의 지역사회 역학용 기준점(cutoff score)인 21점(조맹제, 김계희, 1993) 이상인 대학생의 비율에서도 지역 간의 차이가 나타났다( $\chi^2(4, N=1000)=13.05, p<.05$ ). 구체적인 내용은 CES-D 점수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강원지역이 32%로 가장 높았고( $z=1.7, p=.09$ ) 경상지역이 17.5%로 가장 낮았다( $z=-2.4, p<.05$ ).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조사대상 대학생의 26%가 우울증 위험이 있는 점수를 기록하였고, 이는 전국 대학생 4명 중 1명이 관심이 필요한 수준의 우울을 경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자료의 전반적인 경향성을 보자면, 강원지역과 충청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우울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에 경상지역이 상대적으로 낮은 우울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BAI).** 지역에 따른 불안 경험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BAI 점수에 대한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불안에서는 지역 간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F(4, 995)=1.03, ns$ , 표 1). 마찬가지로 불안의 임상적 기준점(cutoff score)인 26점 이상의 대학생 수의 비율에서도 지역 간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chi^2(4, N=1000)=1.44, ns$ ). 전반적으로 볼 때, 모든 지역에서 대학생들의 불안 수준은 높은 편이 아니었고, 심각한 수준의 불안을 경험하는 비율도 높지 않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우울과 불안은 40-75%의 임상사례에서 동시 발생할 만큼 서로 관련성이 높은 대표적인 부정 정서 상태로서(Kessler et al., 1996; Shankman & Klein, 2003) 본 연구에서도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64, p<.001$ ) 지역별로도 대부분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r=.59-.69, p<.001$ ). 하지만 흥미롭게도 우

표 1. 부정 정서의 지역 간 차이

구분	서울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전체	F	$\chi^2$
사례수	200	200	200	200	200	1000		
CES-D	14.34 <sup>ab</sup> (8.87)	16.77 <sup>a</sup> (10.10)	16.19 <sup>ab</sup> (10.30)	15.63 <sup>ab</sup> (11.13)	13.90 <sup>b</sup> (8.49)	15.36 (9.87)	3.06*	
CES-D 21점 이상 사례수(%)	48 (24.0)	64 (32.0)	54 (27.0)	59 (29.5)	35 (17.5)	260 (26.0)		13.05*
BAI	9.37 (8.52)	9.65 (8.46)	9.99 (8.18)	9.80 (.69)	8.34 (7.75)	9.34 (8.57)	1.03	
BAI 26점 이상 사례수(%)	9(4.5)	12(6.0)	8(4.0)	11(5.5)	8(4.0)	48(4.8)		1.44

\*  $p<.05$ . a, b는 Scheffe 사후검증 결과( $a>b$ ,  $ab$ 는 a와도 b와도 차이 없음).

울에서 지역 차이가 발견된 것과는 달리 불안에서 지역 차이가 발견되지 않은 것은 우울이 현재 또는 과거 사건과 관련되고 자존감에 직접 영향을 주는 반면, 불안은 미래지향적이고 위험 예측과 관련되는 상태로 서로 구분되는 부적 정서라는 기존의 주장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Dobson, 1985).

**긍정정서**

**주관적 안녕감(SWB), 인지적 안녕감(CWB), 정서적 안녕감(AWB).** 개인의 행복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주관적 안녕감(SWB) 지수는 PANAS를 통해 측정된 긍정정서와 부정정서의 표준점수 간의 차이에 삶의 만족도 표준점수가 더해진 값으로 계산되었다(Diener, 1984). SWB에 대한 일원분산분석 결과, 지역 간에 따른 행복 경험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4, 995)=5.22, p<.001$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울경기와 경상지역에 비해 강원, 충청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SWB가 나타나는 것으로 발견되었다(표 2). 이

는 앞선 우울 수준 비교에서도 나타난 지역차 경향성과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즉, 강원, 충청지역에서 우울 수준이 높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두 지역의 SWB는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SWB의 분석 결과는 강원과 충청지역의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행복감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두 지역의 낮은 행복감은 행복의 차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거나 어느 한 차원에서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 다시 말해, SWB를 구성하는 삶의 만족도와 같은 인지적 안녕감(CWB)과 정서적 안녕감(AWB)의 두 차원에서 지역의 행복 경험 수준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실제로 최근에 다양한 연구들이 CWB와 AWB의 차이를 여러 측면에서 보여주고 있다(Diener, Ng, Harter, & Arora, 2010; Luhmann, Hofmann, Eid, & Lucas, 2012; Schimmck, Schuoo, & Wagner, 2008).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CWB와 AWB를 각각 삶의 만족도, 긍정정서 - 부정정서로 지표화하여 그 지역 차를 분석하였다. 그 결

표 2. 긍정 정서의 지역 간 차이

구분	서울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전체	F
사례수	200	200	200	200	200	1000	
SWB	.376 <sup>a</sup> (2.22)	-.341 <sup>bc</sup> (2.23)	-.355 <sup>c</sup> (2.20)	-.005 <sup>abc</sup> (2.27)	.325 <sup>ab</sup> (1.89)	0.00 (2.18)	5.22 <sup>***</sup>
CWB	4.08 <sup>ab</sup> (1.19)	3.49 <sup>c</sup> (1.17)	3.73 <sup>c</sup> (1.10)	3.75 <sup>bc</sup> (1.20)	4.15 <sup>a</sup> (1.06)	3.84 (1.17)	11.27 <sup>***</sup>
AWB	.99 (.99)	.85 (1.06)	.70 (1.09)	.93 (1.10)	.92 (.91)	.88 (1.03)	2.41 <sup>*</sup>
PWB	3.55 <sup>a</sup> (.53)	3.55 <sup>a</sup> (.48)	3.57 <sup>a</sup> (.47)	3.35 <sup>b</sup> (.50)	3.46 <sup>ab</sup> (.45)	3.50 (.49)	6.87 <sup>***</sup>

\*  $p<.05$ , \*\*\*  $p<.001$ , a, b, c는 Scheffe 사후검증 결과( $a>b>c$ , ab는 a와도 b와도 차이 없음, bc는 b와도 c와도 차이 없음, abc는 a와도 b와도 c와도 차이 없음).

과, 흥미롭게도 CWB에서는 강원, 충청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을 보인 반면( $F(4, 995)=11.27, p<.001$ ), AWB의 경우는 지역 차가 발견되었지만 뚜렷하게 나타났던 강원, 충청지역의 낮은 행복 패턴이 약화된 것을 볼 수 있다( $F(4, 995)=2.41, p<.05$ , 표 3).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의 지역별 SWB 차이는 정서적 안녕감 보다는 전반적인 삶의 대한 평가와 같은 인지적인 측면이 더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심리적 안녕감(PWB).** 쾌락적인 측면이 강조되는 SWB와 함께 행복을 측정하는 또 다른 지표인 심리적 안녕감(PWB)은 관계, 자주성, 삶의 목표와 같은 의미적인 측면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PWB의 지역 차를 알아보는 것은 다른 관점에서 한국인의 행복을 묘사해줄 수 있는 가치를 지닌다. 이러한 PWB의 지역 차를 검증한 결과, 흥미롭게도 지금까지와는 다른 패턴의 지역 차가 발견되었다( $F(4,$

$995)=6.87, p<.001$ ). 구체적으로 보면, 서울경기와 강원, 충청지역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PWB를 보이고 있다(표 2).

이 발견은 두 가지 함의를 지닌다. 첫째, 기존의 연구들과 일관되게 SWB와 PWB는 구분되는 행복의 개념이란 주장을 지지해준다(Ryff, 1989). 둘째, 비록 강원, 충청지역이 우울과 SWB, CWB 등에서 낮은 수준을 보였지만 PWB에서는 높은 수준을 보인 것은 두 지역의 사람들이 행복의 쾌락적인 측면 보다는 의미적이고 자기 성장적인 측면을 강조할 가능성을 제시한다.

사고방식

**종합적 사고(Holism)**

동양의 종합적 사고 방식 정도가 지역 별로 상이하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Holism 점수에 대한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지역차가 드러났다( $F(4, 995)=18.96, p<$

표 3. 사고방식의 지역 간 차이

구분	서울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전체	F
사례수	200	200	200	200	200	1000	
Holism	4.54 <sup>b</sup> (.71)	4.80 <sup>a</sup> (.69)	4.87 <sup>a</sup> (.62)	4.40 <sup>b</sup> (.63)	4.52 <sup>b</sup> (.57)	4.62 (.67)	18.96 <sup>***</sup>
수직개인주의	4.15 <sup>b</sup> (.79)	4.32 <sup>ab</sup> (.83)	4.19 <sup>b</sup> (.78)	4.20 <sup>b</sup> (.72)	4.45 <sup>a</sup> (.73)	4.26 (.78)	5.23 <sup>***</sup>
수평개인주의	4.71 <sup>ab</sup> (.92)	4.86 <sup>a</sup> (.92)	4.81 <sup>ab</sup> (.85)	4.60 <sup>b</sup> (.87)	4.84 <sup>a</sup> (.72)	4.77 (.86)	3.16 <sup>*</sup>
수직집합주의	4.58 <sup>ab</sup> (.80)	4.72 <sup>a</sup> (.78)	4.66 <sup>ab</sup> (.77)	4.48 <sup>b</sup> (.79)	4.73 <sup>a</sup> (.64)	4.63 (.76)	3.98 <sup>**</sup>
수평집합주의	4.74 <sup>ab</sup> (.88)	4.93 <sup>a</sup> (.81)	4.86 <sup>a</sup> (.86)	4.62 <sup>b</sup> (.91)	4.89 <sup>a</sup> (.72)	4.81 (.84)	4.64 <sup>***</sup>

\*  $p<.05$ , \*\*  $p<.01$ , \*\*\*  $p<.001$ , a, b는 Scheffe 사후검증 결과(a>b, ab는 a와도 b와도 차이 없음).

.001). 구체적인 양상을 살펴보면, 강원, 충청 지역이 다른 세 지역에 비해 높은 Holism 점수를 기록하였다(표 3). 이 결과는 부분보다는 전체적 맥락을 보고, 사건들 간의 인과관계는 복잡하고 양방향적으로 존재한다는 식의 사고가 뚜렷한 한국 내에서도 강원, 충청지역의 사람들이 다른 지역의 사람들보다 종합적 사고방식을 더 강하게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두 지역에서 다른 지역, 특히 서울지역보다 종합적 사고가 강하게 나타난 것은 흥미로운 가능성을 제기한다. 종합적 사고와 관련한 기존의 동서양 비교 연구들은 대부분 서울지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얻어진 자료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Choi, Koo, & Choi, 2007). 만약 기존에 수행된 연구들을 강원, 충청지역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면 이전에 발견된 문화 차이는 더 판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종합적 사고와 관련된 인지과제의 수행에 있어서도 지역 차가 발견될 수 있을지에 관한 것이다. 예를 들어, 사건의 인과관계 판단이나 사람들의 행동에 대한 귀인 판단에 있어 지역 차가 발견된다면 현실 세계에서 발생하는 지역 간 사고의 불일치를 이해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는 연구가 될 수 있다.

#### 수직 vs 수평 × 개인주의 vs 집합주의

또 다른 문화적 사고방식의 지표인 수직 vs 수평 차원의 개인주의 vs 집합주의 정도에서도 지역차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지역 간의 비교를 실시한 결과, 총 네 가지 차원에서 모두 지역차가 발견되었다(수직개인주의:  $F(4, 995)=5.23, p<.001$ , 수평개인주의:  $F(4, 995)=3.16, p<.05$ ), 수직집합주의:  $F(4, 995)=$

$3.98, p<.01$ ), 수평집합주의:  $F(4, 995)=4.64, p<.001$ ). 전반적인 패턴을 살펴보면, 강원과 경상 지역에서는 네 가지 차원 모두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전라지역은 네 차원 모두 낮은 양상을 보인 점이 두드러진다(표 3).

이러한 지역 차와 별개로, 한 가지 흥미로운 발견은 모든 지역에서 수평개인주의와 수평집합주의가 수직개인주의와 수직집합주의보다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F_3 \geq 11.06, p < .01$ ). 이는 조사된 대학생들이 경쟁이나 사회적 지위, 서열 보다는 개인의 독특성 추구하고 평등을 더 중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개인주의와 집합주의 차이는 오직 수직 차원에서만 나타나고( $F_3 \geq 19.80, p < .001$ ) 수평 차원에서는 차이가 없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F_3 \leq 1.46, ns$ ). 흔히 한국을 집합주의 사회라고 분류하지만 이는 수직 차원에서만 해당되고 오히려 수평 차원에서는 개인주의와 집합주의 두 사고방식을 모두 받아들인다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가치관

##### 보수성과 권위주의

지역에 따라 보수적인 가치관을 얼마나 다르게 수용하고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지역 간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F(4, 995)=14.41, p<.001$ ). 구체적으로 보면, 전라와 경상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보수성이 강하게 나타났다(표 4). 보수성과 유사하게 권위주의에서도 전라와 경상, 그리고 서울경기지역이 높은 수준의 권위주의를 보였다( $F(4, 995)=11.55, p < .001$ , 표 4). 이 결과들이 흥미로운 이유는 지역갈등의 두 축으로 지적되는 전라와 경상 두 지역에서 보수성과 권위주의가 동일한 수준으



표 4. 보수성, 권위주의, 신뢰의 지역 간 차이

구분	서울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	평균 (표준편차)	F
사례수	200	200	200	200	200		
보수성	3.41 <sup>b</sup> (.97)	3.48 <sup>b</sup> (.88)	3.27 <sup>b</sup> (.92)	3.78 <sup>a</sup> (.74)	3.79 <sup>a</sup> (.80)	3.55 (.89)	14.41***
권위주의	3.67 <sup>a</sup> (.57)	3.43 <sup>b</sup> (.57)	3.45 <sup>b</sup> (.67)	3.73 <sup>a</sup> (.49)	3.64 <sup>a</sup> (.49)	3.59 (.57)	11.55***
신뢰	2.80 <sup>a</sup> (.55)	2.65 <sup>ab</sup> (.63)	2.60 <sup>b</sup> (.56)	2.90 <sup>a</sup> (.47)	2.76 <sup>a</sup> (.49)	2.74 (.55)	12.35***

\*\*\*  $p < .001$  a, b는 Scheffe 사후검증 결과(a>b, ab는 a와도 b와도 차이 없음).

로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비록 여러 가치관을 포함하여 정치적 입장이 대립되는 두 지역이지만 보수성과 권위주의에 있어서는 매우 유사한 집단이라고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

### 신뢰

타인에 대한 신뢰에서도 지역차가 발견되었다( $F(4, 995)=12.35, p<.001$ ). 사후검증 결과, 충청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은 수준의 신뢰를 보였고, 강원지역도 낮은 신뢰 경향성을 드러냈다(표 4). 이 결과는 앞선 지역 간 행복 차와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 구체적으로, 낮은 주관적 안녕감과 삶에 대한 만족도를 보인 강원과 충청지역에서 낮은 수준의 신뢰가 발견된 것은 행복과 신뢰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밝힌 기존 연구들과 일관된다(Leung, Kier, Fung, Fung, & Sproule, 2011).

### 가치관(SVS)

Shwarz 가치관 척도의 27개 가치에 있어서는 18개의 가치들에서 지역에 따른 차이가 발

견되었다(표 5). 이 결과는 다양한 가치관을 중시하는 방식에서 한국 사회가 매우 이질적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몇 가지 흥미로운 패턴을 소개하면, 앞선 보수성과 권위주의 패턴과 일관되게 전라와 경상지역에서 사회적 권력에 대한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4, 995)=2.52, p<.05$ ). 자유와 소속감의 가치에 대해서는 강원과 충청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더 중시하는 경향성이 있었는데(자유:  $F(4, 995)=9.99, p<.001$ , 소속감:  $F(4, 995)=3.86, p<.01$ ), 이는 두 지역의 낮은 행복감을 고려해볼 때 자유와 소속감이 추구하는 만큼 충족되지 못하고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강원과 충청지역은 자기통제에 대해서도 높은 가치를 두고 있으며( $F(4, 995)=3.46, p<.01$ ), 아마도 이러한 경향성이 개인의 정서 표현을 억누르게 하고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역할에 충실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낮은 행복 수준에 기여하는 기제로서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 후속 연구를 통해 가치관의 지역차와 행복의 관계를 밝혀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표 5. SVS 가치관의 지역 간 차이

구분	서울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전체	F
사례수	200	200	200	200	200	1000	
사회적 권력	2.69 <sup>b</sup> (1.53)	2.90 <sup>ab</sup> (1.60)	2.90 <sup>ab</sup> (1.84)	3.08 <sup>ab</sup> (1.81)	3.17 <sup>a</sup> (1.56)	2.95 (1.68)	2.52*
자유	4.15 <sup>b</sup> (1.50)	4.70 <sup>a</sup> (1.30)	4.64 <sup>a</sup> (1.33)	3.99 <sup>b</sup> (1.66)	4.13 <sup>b</sup> (1.36)	4.32 (1.46)	9.99***
소속감	3.60 <sup>b</sup> (1.47)	4.03 <sup>a</sup> (1.41)	3.90 <sup>ab</sup> (1.36)	3.63 <sup>ab</sup> (1.71)	3.58 <sup>b</sup> (1.36)	3.75 (1.48)	3.86**
재미있는 생활	3.94 <sup>ab</sup> (1.47)	4.34 <sup>a</sup> (1.53)	4.17 <sup>a</sup> (1.41)	3.72 <sup>b</sup> (1.83)	4.04 <sup>ab</sup> (1.27)	4.04 (1.53)	4.83***
국가의 안보	3.37 <sup>b</sup> (1.79)	3.86 <sup>a</sup> (1.66)	4.05 <sup>a</sup> (1.58)	3.67 <sup>ab</sup> (1.79)	3.76 <sup>ab</sup> (1.44)	3.74 (1.67)	4.62***
은혜에 보답하기	3.85 <sup>b</sup> (1.61)	4.21 <sup>a</sup> (1.43)	4.34 <sup>a</sup> (1.38)	3.63 <sup>b</sup> (1.73)	4.08 <sup>a</sup> (1.31)	4.02 (1.52)	7.14***
창의성	4.13 <sup>ab</sup> (1.67)	4.50 <sup>a</sup> (1.48)	4.28 <sup>ab</sup> (1.54)	4.02 <sup>b</sup> (1.68)	4.10 <sup>ab</sup> (1.32)	4.21 (1.55)	3.02*
전통에 대한 존중	3.11 <sup>b</sup> (1.78)	3.74 <sup>a</sup> (1.74)	3.57 <sup>ab</sup> (1.67)	3.64 <sup>a</sup> (1.67)	3.61 <sup>a</sup> (1.42)	3.54 (1.67)	4.41**
자기통제	3.78 <sup>b</sup> (1.57)	4.25 <sup>a</sup> (1.52)	4.22 <sup>a</sup> (1.36)	4.08 <sup>ab</sup> (1.65)	3.95 <sup>ab</sup> (1.34)	4.06 (1.50)	3.46**
사회적 안정	3.81 <sup>b</sup> (1.59)	4.29 <sup>a</sup> (1.45)	4.01 <sup>ab</sup> (1.50)	3.81 <sup>b</sup> (1.58)	3.95 <sup>ab</sup> (1.36)	3.97 (1.51)	3.43**
권위	3.00 <sup>ab</sup> (1.78)	2.94 <sup>ab</sup> (1.96)	2.66 <sup>b</sup> (1.67)	3.23 <sup>a</sup> (1.71)	3.38 <sup>a</sup> (1.49)	3.04 (1.74)	5.09***
야망	3.66 <sup>b</sup> (1.49)	4.16 <sup>a</sup> (1.50)	3.80 <sup>ab</sup> (1.56)	3.80 <sup>ab</sup> (1.63)	3.92 <sup>ab</sup> (1.28)	3.87 (1.50)	3.15*
아량	4.14 <sup>ab</sup> (1.47)	4.48 <sup>a</sup> (1.59)	4.30 <sup>ab</sup> (1.49)	4.00 <sup>b</sup> (1.64)	4.02 <sup>b</sup> (1.33)	4.19 (1.51)	3.59**
환경보호	3.68 <sup>b</sup> (1.72)	4.23 <sup>a</sup> (1.73)	3.98 <sup>ab</sup> (1.57)	3.83 <sup>ab</sup> (1.67)	3.82 <sup>ab</sup> (1.45)	3.91 (1.64)	3.25*
정직	4.18 <sup>ab</sup> (1.63)	4.58 <sup>a</sup> (1.49)	4.40 <sup>ab</sup> (1.40)	3.97 <sup>b</sup> (1.73)	4.12 <sup>b</sup> (1.40)	4.25 (1.55)	5.06***
삶을 즐기기	4.20 <sup>ab</sup> (1.48)	4.60 <sup>a</sup> (1.49)	4.38 <sup>ab</sup> (1.41)	4.04 <sup>b</sup> (1.68)	4.21 <sup>ab</sup> (1.33)	4.29 (1.49)	4.12**
종교적 독실함	2.93 <sup>ab</sup> (2.28)	2.53 <sup>b</sup> (2.32)	2.86 <sup>ab</sup> (2.30)	3.22 <sup>a</sup> (1.94)	3.19 <sup>a</sup> (1.77)	2.94 (2.14)	4.43**
성공	4.10 <sup>b</sup> (1.49)	4.78 <sup>a</sup> (1.35)	4.44 <sup>ab</sup> (1.40)	4.19 <sup>b</sup> (1.63)	4.16 <sup>b</sup> (1.21)	4.33 (1.44)	7.70***

\*\*\*  $p < .001$  a, b는 Scheffe 사후검증 결과(a>b, ab는 a와도 b와도 차이 없음).

### 논 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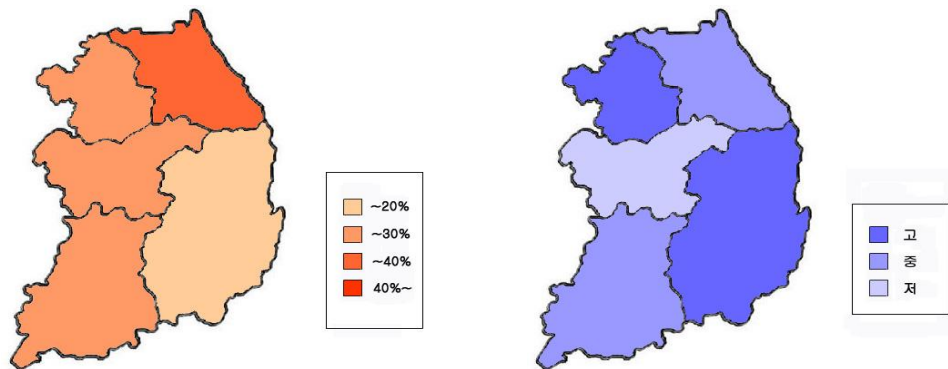
본 연구는 한국인의 마음과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 정서, 사고방식, 가치관의 3개 영역에 대한 지역별 기초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정서영역에서 우울, 불안, 주관적 안녕감(SWB), 심리적 안녕감(PWB)을, 사고영역에서 종합적사고와 수평vs수직-개인주의vs집합주의를, 가치관영역에서 행복에 대한 신념과 보수성, 권위주의, 신뢰 및 삶의 영역에서의 일반적 가치들을 포괄하는 Schwarz의 가치관척도(27개) 등을 각 지역의 대학생들에게 조사하여 지역차이를 기술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심리적 변인들의 한국 내 지리적 분포를 기술하였다는 점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정서, 사고방식, 가치관 등의 모든 영역의 많은 지표들에서 지역 사이의 분명한 차이들이 나타났다. 지역 차이를 요약해보면 연구에서 구분한 5개 권역은 어느 정도 일정한 패턴에 따라 동질적인 집단으로 분류할 수 있었는데, 강원·충청 지역과 전라·경상 지역이 그

것이다.

먼저 강원·충청권을 살펴보면, 이 지역들은 우울이 높고 주관적 안녕감(SWB)이 낮은 경향을 보였고, 종합적 사고 경향이 높고 신뢰수준은 낮은 공통점이 나타났다. 즉 강원 및 충청지역 대학생들은 높은 우울과 낮은 행복감을 경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통계청(2009)에서 발표한 지역별 자살율(10만 명당)은 강원 43.6, 충청 39.6으로 기타 지역(서울경기 28.7, 전라 31.8, 경상 30.4)을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은 자살동기에 직,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는 만큼(김교현, 2004; 배지연, 김원형, 2005; 하정희, 안성희, 2008; 육성필, Hirsch, 2010), 본 연구의 결과는 실제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또한 동양적 사고의 전형이라 할 수 있는(Nisbett, 2003; Nisbett et al., 2001) 종합적 사고 경향이 이들 지역에서 높았다는 것은 강원과 충청지역이 전통적 사고방식을 비교적 강하게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 지도의 지역차는 우울의 경우 CES-D의 점수가 21점을 넘은 이들의 비율(%)로, 주관적 안녕감 및 기타 변인들은 통계적 유의도에 근거하여 표시하였음.

그림 1. 우울(좌)과 주관적안녕감(우)의 지역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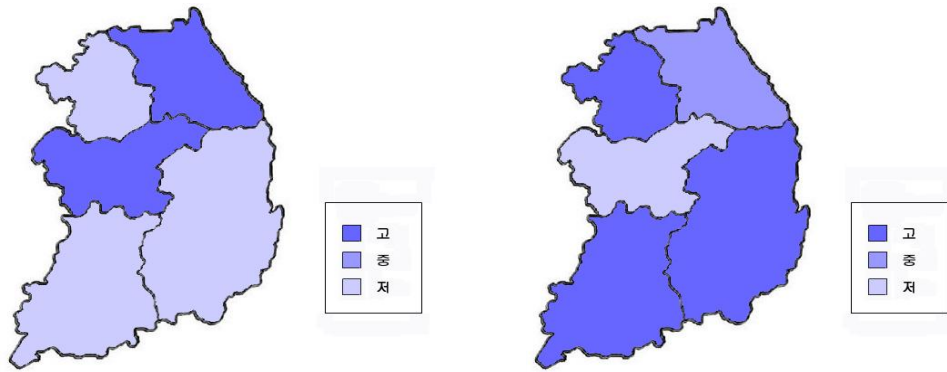


그림 2. 종합적 사고(좌)와 신뢰(우)의 지역차이

대상자들(20대 대학생)이 성장한 1991년부터 2010년까지의 지역별 인구이동 추이를 조사한 결과, 강원과 충청지역의 인구이동이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적었다<sup>1)</sup>. 인구의 지역간 이동은 서로 다른 사고방식과 가치가 섞이게 된다는 것이다. 이들 두 지역에서는 인구이동이 적었기에 전통적 사고방식이 유지되어 왔을 것이라 판단된다. 특히 강원, 충청 지역의 신뢰 수준이 낮은 이유는 해당지역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경험해 온 사건들(공약파기, 지역소외 등)과 관련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으로 전라·경상권은 가치관의 측면에서 공통점을 보였는데, 보수성(RWA)과 권위주의(SDO)의 점수가 타 지역보다 높았고, Schwarz 가치관 척도에서도 전통에 대한 존중 및 권위에서 타 지역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다. 신뢰 역시 강원·충청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전라와 경상지역은 역사적으로 전통의 권위를 중시해 온 지역으로 지역의 고유한 문화적 특색이 아직까지도 잘 유지되고 있는 지

역이다. 그러한 특색이 보수성 및 권위주의 성향에 반영된 것이라 생각된다.

한편 특정 지역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경향들도 다수 나타났는데, 예를 들면 가치관에 대한 선호에서 강원지역은 지역차이가 나타난 총 18개의 가치들 중 무려 15개의 가치를 타 지역에 비해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반면에 서울경기지역은 18개의 가치들 중 다른 지역보다 특별히 더 중요하다고 응답한 가치는 하나도 없었으며, 그 중 11개의 가치에서는 타 지역들에 비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또한 세분화된 문화성향(수평 vs 수직×개인주의 vs 집합주의)에서 경상지역은 모든 차원에서 높은 점수를 보인 반면, 전라지역은 모든 차원에서 낮은 점수를 보고하였다.

본 연구는 치밀한 이론적 배경에서 조직된 가설을 검증하는 연구가 아니라 실태조사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한국 내의 심리적 다양성을 조망하였다는 성과 외에 연구의 결과 드러난 지역차이를 해석할 수 있는 이론적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그간 동질한 집단으로 고려되어 오던 한국 내 지역들 사이의 심리적 이질성을 드러낸 것으로 일차적인 의의를 갖

1) 1991년부터 2010년까지 20년간 지역별 인구이동 총계 (시/도간 전입자+전출자): 서울경기 60,093,276명, 강원 3,574,885명, 충청 12,164,070명, 전라 12,744,528명, 경상 24,777,473명 (출처: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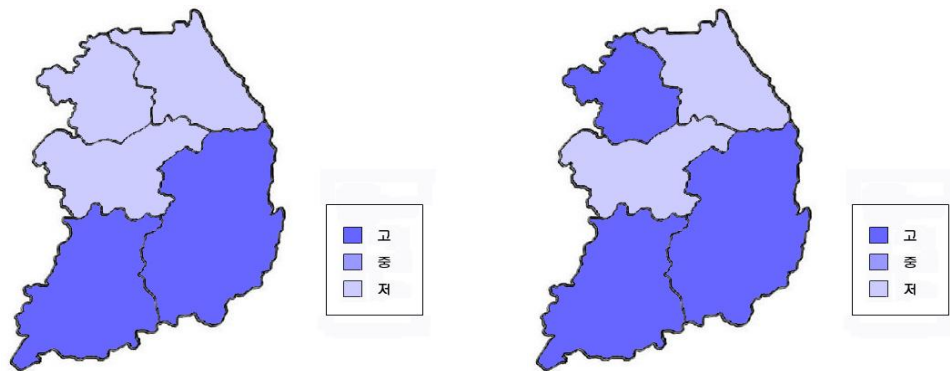


그림 3. 보수성(좌) 및 권위주의(우)의 지역 차이

는다. 이러한 차이들은 지역별 심리적 특성을 이해하는 데에 유용할 뿐만 아니라 향후 지역 간 비교 연구 등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즉, 향후 이루어질 전국적 표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보다 신뢰로운 연구를 위해 특정 지역 출신 연구참여자들의 기본적 심리특질을 확인하여 연구설계 및 연구결과의 해석에 반영하는 등의 절차가 반드시 부가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연구에서 드러난 한국 내의 지역차이는 비교문화 연구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제까지 한국표본을 사용해 이루어진 비교문화 연구들은 대개 서울지역 표본을 대상으로 한 것이 많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밝혀진 서울지역 대학생들은 타지역 대학생들과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면, 서울지역 대학생들은 덜 집합주의적이고 종합적으로 사고하는 경향도 낮았으며, 행복수준도 타 지역보다 높았다. 이로 미루어, 서울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비교문화 연구의 결과는 실제의 차이보다 과대 혹은 과소평가되었을 소지가 높다. 따라서 앞으로 수행될 비교문화연구에는 이러한 지역 차이에 대한 고려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의 결과에서 몇 가지의 이론적 함의를 발견할 수 있다. 우선 행복감의 측정치로 사용한 주관적 안녕감(SWB)과 심리적 안녕감(PWB)의 개념적 차이이다. 주관적 안녕감은 서울경기와 경상지역은 높고 강원과 충청지역이 낮았으나, 심리적 안녕감(PWB)에서는 서울경기, 강원, 충청지역은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전라, 경상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다. 이러한 차이는 두 개념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생각된다. 주관적 안녕감은 삶에 대한 주관적 만족감과 행복의 정서적 측면을 강조하는 반면(Diener, 1984; Diener et al., 1999), 심리적 안녕감은 개인이 사회적 맥락에서 개인적, 사회적 기능을 얼마나 잘 수행하느냐에 관련된 개념이다(Ryff, 1989; Ryff & Keyes, 1995). 즉, 강원과 충청지역의 대학생들은 자신들의 개인적, 사회적 기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삶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이 낮고 현재의 삶에서 부정적 정서를 보다 많이 경험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결과들은 주관적 안녕감과 심리적 안녕감, 두 지표의 질적 차이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으며, 이 지표들을 사용한 행복연구들의 실행과 해석에 시사점을 제

공한다.

또한 세분화된 문화성향(Singelis et al, 1995)에서도 의미있는 결과들이 보인다. 수직적 개인주의는 경상지역이 그 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수평적 개인주의는 강원과 경상지역이 기타 지역보다 높았다. 수직적 집합주의도 강원과 경상지역이 높게 나타났으며 수평적 집합주의는 강원, 충청, 경상지역에서 높았다. 요약하자면 지역과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수평차원이 수직차원보다 높은 점수분포를 보였으며 상대적으로 개인주의와 집합주의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전통적 문화성향이 변화하는 중에 여러 가치가 혼재되어 있는 양상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한국을 더 이상 전형적인 집합주의 문화로 보기 어렵다는 최근 실시된 연구의 결과들과 궤를 같이 한다(류승아, 2009; 이중환, 2000; 한규석, 신수지, 1999). 그 외에도 우울과 불안의 개념적 차이(Dobson, 1985)와 주관적 안녕감의 인지요소와 정서요소 간의 차이(Diener, Ng, Harter, & Arora, 2010; Luhmann, Hofmann, Eid, & Lucas, 2012; Schimmck, Schuoo, & Wagner, 2008)에 대한 기존의 연구결과들을 지지하는 결과들이 다수 발견되었다(결과 부분 참조).

한편 연구의 한계 및 제안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에서 기술된 지역차이의 원인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지역별 인구의 이동이나 산업 및 경제구조의 특성, 지역의 역사·문화적 특성 등 다양한 변인이 지역차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본 연구의 결과로 지역차이의 이유를 짐작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는 지역차이에 대한 기존연구가 거의 없었던 현실에서 우선 지역적 차이를 기술하고자 했던 본 연구의 목적에서 기인한다. 후속연구로 이러한 지역차이를

일으키는 원인이 규명된다면 한국인들의 정서, 사고방식, 가치관을 보다 일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가능하려면 심리학뿐만 아니라 역사, 지리, 지역학 등 다양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자기보고방식의 조사방법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기보고방식은 쉽게 많은 표본으로부터 자료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실제 삶의 구체적 양상들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단점을 갖는다. 본 연구는 한국인의 마음에 대한 다양한 지역적 차이들을 발견하여 기술하였지만, 그러한 차이들은 통계적 유의도에서의 차이를 의미할 뿐 그것들을 곧 실제적인 지역차이로 이해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Vandello와 Cohen(1999)의 연구처럼 다양한 맥락에서의 생활패턴을 조사하여 설문지로 조사한 개념들과의 관계를 입증하거나, Uskul, Kitayama와 Nisbett(2008)의 방법처럼 인지, 정서, 행동적 실험을 실시하여 보다 실제적인 정보로 지역차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연구에서 나타난 지역차이는 대학생들에 한정되는 것으로 전체 한국인들에게 일반화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해당 지역에서 초, 중,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해당 지역의 대학에 재학 중인 이들을 표집함으로써 조사대상자들은 적어도 해당 지역의 문화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본 연구는 지역, 연령, 계층에 걸쳐 한국인의 마음을 알아보고자 하는 연구계획의 첫 번째 연구로서, 현재 연령별, 계층별 차이를 분석하는 후속 연구가 진행 중이다. 향후 이에 대한 자료들이 추가된다면 한국인들의 마음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이고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 참고문헌

- 강혜자, 한덕웅, 전경구 (2000). 정서측정을 위한 도구 개발: 자기차이 이론을 중심으로. *예술치료학회*, 7(1), 51-67.
- 김교현 (2004). 한국 청소년의 우울과 자살.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0(특), 55-68.
- 박혜경 (2011). 문화차는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생태문화적 연구의 현황과 과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0(1), 265-291.
- 배지연, 김원형 (2005). 노인의 우울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 발표논문집*.
- 설선혜, 최인철 (2009). 분석적-종합적 인지양식과 파급효과의 예측.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3(3), 19-38.
- 성민선, 서은국, 전우영 (2007). 타인의 행복 예측에서 나타나는 오류: 서울과 춘천의 삶의 만족도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1(2), 35-45.
- 안신호, 권오식, 이승혜 (1990). 정서의 구조: 정서 단어의 분석. 1990년도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 학술발표 논문집.
- 육성필, Hirsch, J, K. (2010). 스트레스, 우울, 자살의 이해와 예방: 한국의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공동체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6(2특), 147-164.
- 이누미야 요시유키, 최일호, 윤덕환, 서동효, 한성열 (1999). 비현실적 낙관성(unrealistic optimism) 경향에 있어서의 비교 문화 연구: 상호독립적-상호협조적 자기관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3(1), 183-201.
- 이민규, 김교현, 김정남 (2003). 도박중독 실태와 도박중독자들의 심리사회적 특성-지역별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8(2), 399-414.
- 이인혜 (2005). 카지노 유치지역 주민의 도박 참여 및 도박중독 실태와 삶의 만족도: 강원도 폐광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1(4), 67-82.
- 이종한 (2000). 한국인의 대인관계의 심리사회적 특성: 집단주의 성향과 개인주의 성향으로의 변화.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6(3특), 201-219.
- 장휘숙 (2007). 중년성인과 노인의 SOC 전략과 생활만족-농촌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0(2), 131-144.
- 전경구, 최상진, 양병창 (2001). 통합적 한국판 CES-D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6(1), 59-76.
- 조맹제, 김계희, (1993). 주요우울증환자 예비평가에서 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CES-D) 진단적 타당성 연구. *신경정신의학*, 32(3), 381-399.
- 조선영, 이누미야 요시유키, 김재신, 최일호 (2005). 한국과 일본에서 상호독립적-상호협조적 자기관이 대인불안에 미치는 영향: 자기존중감과 공적자기의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9(4), 49-60.
- 조용래 (2008). 지역사회 거주 노인들의 일반화된 불안장애와 위험요인들에 대한 조사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7(3), 711-736.
- 차재호 (1987). 한국 사회에서의 가치관의 변

- 화와 적응문제. *현대사회*, 7, 126-142.
- 최재석 (1994).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 서울: 현음사.
- 최훈석, 양애경, 이선주 (2008). 여성결혼이민자들에 대한 지역사회 수용성: 안산과 영암의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4(4), 39-69.
- 하정희, 안성희 (2008). 대학생들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상담치료*, 20(4), 1149-1171.
- 한규석, 신수진 (1999). 한국인의 선호가치 변화-수직적 집단주의에서 수평적 개인주의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3(2), 293-310.
- 한덕웅, 박군석, 신용균 (2002). 교통환경과 운전자 행동요인의 전국 지역별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8(1), 17-40.
- 한덕웅, 이경성 (2003). 한국인의 인생관으로 본 가치관 변화: 30년간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7(1), 49-67.
- 한은경, 조용래, 박상학, 김학렬, 김상훈 (2003). 한국판 Beck Anxiety Inventory의 요인구조: 정신과 환자를 대상으로 한 확인적 요인 분석의 적용.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2(1), 261-270.
- Adorno, T., Frenkel-Brunswik, E., Levinson, D., & Sanford, R. N. (1950). *The authoritarian personality*. New York: Harper.
- Ajzen, I. (1988). *Attitudes, personality, and behavior*. Chicago: The Dorsey Press.
- Altemeyer, B. (1998). The other 'authoritarian personality'.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0, 47-92.
- Beck, A. T. (1978). *The Beck Depression Inventory*. Philadelphia: Center for Cognitive Therapy.
- Beck, A. T., & Steer, R. A. (1991). Relationship between the Beck Anxiety Inventory and the Hamilton Anxiety Rating Scale with anxious outpatients. *Journal of Anxiety Disorder*, 5, 213-233.
- Beck, A. T., Epstein, N., Brown, G., & Steer, R. A. (1988). An inventory for measuring clinical anxiety: Psychometric properti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 893-897.
- Beck, A. T., Epstein, N., Brown, G., & Steer, R. A. (1988). An Inventory for measuring clinical anxiety: Psychometric properti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 893-897.
- Campbell, J. D., Trapnell, P. D., Heine, S. J., Katz, I. M., Lavallee, L. F., & Lehman, D. R. (1996). Self-concept clarity: Measurement, personality correlates, and cultural boundar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1), 141-156.
- Choi, I., Koo, M., Choi, J. A. (2007). Individual differences in analytic versus holistic thinking.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3, 691-705.
- Cohen, D. (2001). Cultural variation: Considerations and implications. *Psychological Bulletin*, 127, 451-471.
- Cohen, D., Nisbett, R. E., Bowdle, B. F., & Schwarz, N. (1996). Insult, aggression, and the southern culture of honor: An "Experimental ethnograph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945-960.



- Diener, E.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 542-575.
- Diener, E., Emmons, R. S., Larsen, R. J., & Griffin, S. (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 71-75.
- Diener, E., Ng, W., Harter, J., & Arora, R. (2010). Wealth and happiness across the world: Material prosperity predicts life evaluation, whereas psychosocial prosperity predicts positive feel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9, 52-61.
- Diener, E., Suh, E., Lucas, R. E., & Smith, H. (1999). Subjective well-being: Three decades of progress. *Psychological Bulletin*, 125, 276-302.
- Dobson, K. S. (1985). The relationship between anxiety and depression. *Clinical Psychology Review*, 5, 307-324.
- Dru, V. (2007). Authoritarianism,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and prejudice: Effects of various self-categorization condition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3, 877-883.
- Dweck, C. S., & Leggett, E. L. (1988). A social-cognitive approach to motivation and personality. *Psychological Review*, 95, 256-273.
- Endicott, J., & Spitzer, R. L. (1978). A diagnostic interview: The Schedule for Affective Disorders and Schizophrenia.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35, 837-844.
- Galtung, J. (1981). Structure, culture, and intellectual style: An essay comparing saxonic, teutonic, gallic, and nipponic approaches. *Social Science Information*, 20, 817-856.
- Geertz, C. (1973).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s*. New York: Basic.
- Gibbons, F. X., & Buunk, B. P. (1999). Individual differences in social comparison: Development of a scale of social comparison orient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6, 129-142.
- Glick, P., & Fiske, S. (1996). The ambivalent sexism inventory: Differentiating hostile and benevolent sex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491-512.
- Gosling, S. D., Rentfrow, P. J., & Swann, W. B. (2003). A very brief measure of Big five personality domain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7, 504-528.
- Hamilton, M. (1960). A rating scale for depression. *Journal of Neurology, Neurosurgery and Psychiatry*, 12, 56-62.
- Harris, M. (1987). *The sacred cow and the abominable pig: riddles of food and culture*. New York: A Touchstone book.
- Heine, S. J., & Lehman, D. R. (1995). Cultural variation in unrealistic optimism: Does the west feel more invulnerable than the eas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 595-607.
- Heine, S. J., & Lehman, D. R. (1997). The cultural construction of self-enhancement: An examination of group-serving biases.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72(6), 1268-1283.
- Hofstede, G. (1980). Culture and organizations. *International Studies of Management & Organization*, 10, 15-41.
- Ji, L., Nisbett, R. E., & Su, Y. (2001). Culture, change and prediction. *Psychological Science*, 12, 450-456.

- Jost, J. T., Glaser, J., Kruglanski, A. W., & Sulloway, F. J. (2003). Political conservatism as motivated social cognition. *Psychological Bulletin*, 129(3), 339-375.
- Kay, C. A., & Jost, J. T. (2003). Complementary Justice: Effects of "Poor but Happy" and "Poor but Honest" Stereotype Exemplars on System Justification and Implicit Activation of the Justice Motiv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5, 823-837.
- Kessler, R. C., Nelson, C. B., McGonagle, K. A., Liu, J., Swartz, M., & Blazer, D. G. (1996). Comorbidity of DSM-III-R major depression disorder in the general population: Results from the US national comorbidity survey.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68, 17-30.
- Killgore, W. D. (2000). Evidence for a third factor on the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in a college student sample. *perception, Motor, Skills*, 90, 147-152.
- Kitayama, S., & Park, H. (2007). Cultural shaping of self, emotion, and well-being: How does it work?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Compass*, 1, 202-22.
- Kitayama, S., Ishii, K., Imada, T., & Ramaswamy, J. (2006). Voluntary settlement and the spirit of independence: Evidence from Japan's "Northern Frontie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1(3), 369-384.
- Kitayama, S., Markus, H. R., & Kurokawa, M. (2000). Culture, emotion, and well-being: Good feelings i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Cognition and Emotion*, 14, 93-124.
- Kluckhohn, F. R. (1959). Dominant and variant value orientation. In Kluckhohn, C., and Murry, H. A. (Eds.), *Personality in nature, society, and culture*, N. Y.: Alfred. A. Knopf (2nd ed.).
- Kruglanski, A. W., Webster, D. M., & Klem, A. (1993). Motivated resistance and openness to persuasion in the presence or absence of prior inform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5(5), 861-876.
- Kvaal, S. A., & Patodia, S. (2000). Relations among positive affect, negative affect, and somatic symptoms in medically ill patient sample. *Psychological Report*, 87, 227-233.
- Kwon, SM. (1992). Differential roles of dysfunctional attitudes and automatic thoughts in depression: An integrated model of depress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Queensland, Australia.
- Leung, A., Kier, C., Fung, T., Fung, L., & Sproule, R. (2011). Searching for happiness: The importance of social capital.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2, 443-462.
- Levine, T. R., Bresnahan, M. J., Park, H. S., Lapinski, M. K., Wittenbaum, G. M., Shearman, S. M., Lee, S. Y., Chung, D., Ohashi, R. (2003). Self-Constraint Scales Lack Validity.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29 (2), 210-252.
- Luhman, M., Hofmann, W., Eid, M., & Lucas, R. E. (2012). Subjective well-being and adaptation to life events: A meta-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2, 592-615.
- Lyubomirsky, S., & Lepper, H. S. (1999). A measure of subjective happiness: Preliminary reliability and construct validation. *Social*

- Indicators Research, 46, 137-155.
- Maio, G. R., & Olson, J. M. (1995). Relations between values, attitudes, and behavioral intentions: the moderating role of attitude function.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1, 266-285.
- Markus, H., & Kitayama, S. (1991). Culture and self: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 224-253.
- Markus, H., & Wurf, E. (1987). The dynamic self-concept: A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 In M. R. Rosenzweig & L. W. Porter(Ed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Volw, 38). Palo Alto, CA: Annual Reviews.
- Masuda, T., & Nisbett, R. E. (2001). Attending holistically versus analytically: comparing the context sensitivity of Japanes and America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1, 992-934.
- Melvin, G. A., & Molloy, G. N. (2000). Some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among Australian youth. *Psychological Report*, 86, 1209-1212.
- Morris, M. W., & Peng, K. (1994). Culture and cause: American and Chinese attributions for social and physical ev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 949-971.
- Nisbett, R. E. (2003). *The geography of thought: How Asians and Westerners think differently ...and why*. New York: The Free Press.
- Nisbett, R. E., Peng, K., Choi, I., & Norenzayan, A. (2001). Culture and systems of thought: Holistic versus analytic cognition. *Psychological Review*, 108, 291-310.
- Norenzayan, A., & Nisbett, R. E. (2000). Culture and causal cognition.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9, 131-135.
- Norenzayan, A., Smith, E. E., Kim, B., & Nisbett, R. E. (2002). Cultural preferences for formal versus intuitive reasoning. *Cognitive Science*, 26, 653-684.
- Ouschan, L., Boldero, J. M., Kashima, Y., Wakimoto, R., & Kashima. E. S. (2007). Regulatory focus strategies scale: A measure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the endorsement of regulatory strategies. *Asi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0, 223-238.
- Passini, S. (2008). Exploring the multidimensional facets of authoritarianism: Authoritarian aggression and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Swiss Journal of Psychology*, 67(1), 51-60.
- Peng, K., & Nisbett, R. E. (1999). Culture, dialectics, and reasoning about contradiction. *American psychologis*, 54, 741-754.
- Pratto, F., Sidanius, J., Stallworth, L. M., & Malle, B. F. (1994).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A personality variable pr edicting social and political attitud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 741-763.
- Radloff, L. S. (1977).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 385-401.
- Richins, M. L.,& Scott D. (1992). A Consumer Values Orientation for Materialism and Its Measurement: Scale Development and Validation. *Journal of Consumer Research*,19, 303-316.
- Rokeach, M. (1973). *The nature of human values*,

- N. Y.: The Free Press.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othbaum, F., Pott, M., Azuma, H., Miyake, K., & Weisz, J. (2000). The development of close relationships in Japan and the US: Paths of symbiotic harmony and generative tension. *Child Development*, 71, 1121-1142.
- Rothbaum, F., Weisz, J., Pott, M., Miyake, K., & Morelli, G. (2000). Attachment and culture: Security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merican Psychologist*, 55, 1093-1104
- Ryff, C. D. (1989).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 1069-1081.
- Ryff, C. D., & Keyes, C. L. M. (1995).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revisit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 719-727.
- Schimmack, U., Schupp, J., & Wagner, G. G. (2008). The influence of environment and personality on the affective and cognitive component of subjective well-being. *Social Indicator Research*, 89, 41-60.
- Schwartz, B., Ward, A., Monterosso, J., Lyubomirsky, S., White, K., & Lehman, D. R. (2002). Maximizing versus satisficing: Happiness is a matter of choi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3, 1178-1197.
- Schwartz, S. H. (1994). Are there universal aspects in the structure and contents of human values? *Journal of Social Issues*, 50(4), 19-45.
- Schwartz, S. H., & Bilsky, W. (1990). Toward a theory of the universal content and structure of values: Extensions and cross-cultural replic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878-891.
- Shankman, S. A., & Klein, D. N. (2003). The relation between depression and anxiety: An evaluation of the tripartite, approach-withdrawal and valence-arousal model. *Clinical Psychology Review*, 23, 605-637.
- Shin, D. C. & Johnson, D. M. (1978). Avowed happiness as an overall assessment of the quality of life, *Social Indicators Research*, 5, 475-492.
- Singelis, T. M., Triandis, H. C., Bhawuk, D. P. S., & Gelfand, M. J. (1995). Horizontal and Vertical Dimensions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A theoretical and measurement refinement. *Cross-Cultural Research*, August 1995, 240-275.
- Srull, T. K., & Wyer, R. S., Jr. (1986). The role of chronic and temporary goals in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In R. M. Sorrentino & E. T. Higgins(Eds.), *Handbook of motivation and cognition: Foundations of social behavior*. N. Y. : Guilford Press.
- Steer, R. A. Rissmiller, S. J., Ranieri, W. F., & Beck, A. T. (1993). Structure of Computer-Assisted Beck Anxiety Inventory with psychiatric inpatient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60, 532-542.
- Sternberg, R. J. (1997). *Thinking Styles*.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riandis, H. C., (1988), *Collectivism vs. individualism: A reconceptualization of a basic*

- concept in cross-cultural social psychology, in G. K. Verma and C. Bagley(Eds.), *Cross-cultural Studies of Personality, Attitudes and Cognition*(pp.60-95). London: Macmillan.
- Triandis, H. C. (1990). Cross-cultural studies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In J. J. Berman (Eds.), *Cross-cultural perspective.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Vol. 370), Lincoln & Londo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Triandis, H. C. (1994). *Culture and social behavior*. New York: McGraw-Hill.
- Triandis, H. (1995).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Boulder, Col: Westview Press.
- Tsai, J. L., Knutson, B., & Fung, H. H. (2006). Cultural variation in affect valu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0, 288-307.
- Uskul, A. K., Kitayama, S., & Nisbett, R. E. (2008). Ecocultural basis of cognition: Farmers and fishermen are more holistic than herders.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of the USA*, 105, 8552-8226.
- Vandello, J. A., & Cohen, D. (1999). Patterns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across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7(2), 279-292.
- Watson, D., & Tellegen, A. (1985). Toward a consensual structure of mood. *Psychological Bulletin*, 98, 219-235.
- Watson, D., Clark, L. A., & Tellegen, A. (1988).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brief measures of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The PANAS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1063-1070.
- Weissman, M. M., Myers, J. K., & Harding, P. S. (1976). Assessing depressive symptoms in five psychiatric populations: A validation study. *American Journal of Epidemiology*, 106, 203-211.
- Whitley, B. E., Jr. (1998). Authoritarianism and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as independent dimensions of prejudice. paper presented at the 106th Annual Convention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San Francisco.
- Whitley, B. E., Jr., & Lee, S. E. (2000). The relationship of authoritarianism and related constructs to attitudes toward homosexuality.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30, 144-170.
- Yamagishi, T. (1986). The provision of a sanctioning system as a public goo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1), 110-116.
- Zakrisson, I. (2005). Construction of a short version of a the Right-Wing-Authoritarianism (RWA) scal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9, 863-872.
- Zung, W. W. K. (1965). A Self-Rating Depression Scale.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123, 62-70.

1 차원고접수 : 2011. 12. 30.  
수정원고접수 : 2012. 2. 24.  
최종게재결정 : 2012. 6. 8.

## **Korean Mind Map I : Emotions, Thinking style, and Values of Korean college students**

**Min Han      Incheol Choi      Beomjun Kim      Hoonjin Lee      Jinhyung Kim**  
Seoul National University      Kyonggi University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present study is to describe the regional differences of Korea in general factors of mind: Emotion, Thinking style, and Values and to draw Korean Mind Map with the results. The questionnaire was consisted of 10 scales(4 for emotions, 2 for thinking style, 4 for values) and 1,000 college students(Men 523, Women 477) from five regions of Korea(Seoul-Gyeonggi, Gangwon, Chungcheong, Jeolla, Gyeongsang) were participated in the survey. The results are as follows. In Emotion, Gangwon, Chungcheong showed higher depression level than other regions while Seoul-Gyeonggi, Gyeongsang had higher scores of SWB. In Thinking style, holism level was higher in Gangwon, Chungcheong than other regions. In Values, Jeolla, Gyeongsang showed higher RWA level and Seoul-Gyeonggi, Jeolla, Gyeongsang scored higher in trust. More significant results and the maps of them were presented and discussed. With these results we expect to establish a basic psychological database to understand Koreans as well as to provide valuable suggestions for the further studies with the variables used in this study.

*Key words : gender differences, emotions, thinking style, values*